

## 고등학교

# 장난기 어린 눈빛은 진지함으로 바뀌고...

올바른 성문화는 올바른 성교육이 낳는다.

좋은 성교육이란 교육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여 진정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윤명재**  
경북김천중앙고등학교

해마다 3월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한다.

올해는 어떤 자란 아이들을 만날까?

얼만큼 성숙된 아이들을 만날까?

해마다 맞이하는 3월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3월이 기다려졌다. 출석부에 내 이름을 적고 학급일지에 성교육이라고 적을 수 있는 내 수업.

관리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분계 고등학교에 보건교육 시수를 확보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성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상품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이때,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성충동을 자제하여 밝고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극구 피력하여 어렵게 확보한 성교육시간이었다.

보건교육이란 이름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능에도 없는 과목으로 다가가기란 참으로 어려웠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달달 외우는 지식이 아닌 산지식을 심어 주고 싶은 열망을 안고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과 마주한 첫 시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식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무기명으로 평소 자신이 궁금했거나 고민이 되었던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적어 보도록 했다.

수업을 마치고 보건실로 내려와 질문지를 하나 하나 읽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음란물에 대한 노출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의 몸에 대해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인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소화하여 받아 들이지...

또한 손만 잡아도, 키스만 해도 아기가 생길까 걱정하는 순진파 아이들도 있고 백지를 그대로 내며 '관심 없음'을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가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이끌어 갈까 고민하며 지난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전 장난기 어린 눈빛을 거두고 초롱초롱하고 진실된 눈으로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어제는 '이성교제' 부분에서 아이들과 나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수업을 가졌다.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이끌어 갈까 고민하며 지난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젠 장난기 어린 눈빛을 거두고 초롱초롱하고 진실된 눈으로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학생들을 7명씩 조를 짜서 얼굴을 마주보게 둥글게 앉힌 다음 브레인 스토밍에 의한 기법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도록 했다.

'이성교제'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고 토론하여 자신들의 공동 결의문을 작성하여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발표 및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때 표출된 내용을 역할극으로 꾸며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성교제의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한 것을 스스로 받아들 이도록 하였더니 자기들도 스스로도 대견해 하는 수업이었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이 보낸 메일에 답장을 쓰고 있다.

오늘도 나의 네일로 걱정스런 아이들의 상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큰 보람을 느낀다.

